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3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7)

오름과 벚삼은 馬·버섯... 제주인

입력 : 2004. 07.09. 00:00:00



○...제주시에서 한라산 횡단도로인 5.16도로를 따라 제주골프장 언덕을 넘으면 길 왼쪽에 방송 송전탑이 있는 오름이 눈에 들어온다. 오름 서사면은 특이하게도 삼나무가 횡으로 조림돼 있다. 그 바로 앞에는 제주조랑말 방목지가 초원에 펼쳐져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제주마 1백여마리는 견월악 인근 제주마 방목지에서 '고수목마(古藪牧馬)'를 재현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랑말을 벚삼아 촬영하는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장마가 한창인 6월 26일 견월악을 찾았다....○

△견월악(犬月岳, 개오리오름)

견월악은 크고 작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복합형 화산체이다. 행정구역상 제주시 봉개동과 용강동 경계에 걸쳐져 있다. 개오리오름은 주봉(743m)인 송신탑이 서 있는 곳의 오름을 말한다. 전사면은 낙엽수, 상록수 등 자연림과 삼나무, 소나무 등 조림수들로 매우 울창하다.

'오름나그네' 김종철은 산 모양이 개오리(가오리)처럼 생겼다는 이름이라면서 '개가 달을 보고 짚는 형국'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견월악'은 시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억지풀이라고 주장한다.

절물자연휴양림을 지나 견월악 동록으로 향했다. 장마철의 숲은 안개속에 뒤덮여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 버섯에 심취해 있는 고평열씨는 "평상시와 달리 습기로 총만해 있어서, 썩어가는 부식질 위로 온갖 버섯들이 생장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서는 버섯을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씨가 없다. 모기버섯, 연보라무당버섯, 어린말불버섯 등 이름조차도 낯이 설지만 화려함과 생명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빗물을 머금은 식물은 또 어떤가. 염료로 가능성이 높은 산쪽풀이 지천에 널려 있고 히초미 등 생기 넘치는 양치식물이 마치 잘 다듬어진 고급정원을 치장하고 있는 듯 하다.

방향 감각없이 능선을 오르는가 싶더니 가까운 곳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송전탑에서 들리는 소리다. 오름 정상에는 송전탑과 통신탑이 들어서 있어 오름의 원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견월악중계소 진입로가 오름 종턱까지 개설되어 있고 중계소 보호철책 옆으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최근에도 방송용 송전탑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송전탑은 고지대에 설치할 경우 유효반경이 넓어 효과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방송탑, 통신탑, 송전탑의 경우 고지대에 설치하여 그 수를 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지대에 보다 많이 설치할 것인가가 고려돼야 하지만 탑의 구조물, 색상, 높이, 주변 식생에 의한 경관적 차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관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리포트]여름장마를 알리는 견월악의 산수국

견월악은, 가오리오름, 개오리오름, 개월오름 등으로 불리워지는 오름이며, 이번 탐사가 시작된 절물휴양림에서 시작하여 수림을 따라 견월악으로 향하는 길은 전형적인 숲이 시작되는 오름 산행이었다.

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숲은 안개에 가리고 바람에 흔들리며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여 식물을 관찰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날씨임에도 6월부터 꾸준히 피어 제주의 중산간과 도로변을 청색, 쪽색, 자주색, 흰색 등 은근하면서 화려한 칼라로 물들이는 산수국의 산행을 반겨 준다.

흔히 계절과 야생화를 연상하면 복수초는 이른 봄, 벚꽃은 봄, 장마의 시작은 치자 꽃향기와 산수국의 개화를 연상하면 대부분 일치한다.

제주의 초여름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산수국은 식물학적으로 범의귀 과 수국 속에 속한 낙엽 관목이며 수국 속은 세계적으로 약 50종이 있고 제주도에는 산수국, 등수국, 바위수국 등이 분포하며, 등수국과 바위수국은 덩굴성 식물이다.

수국 속 식물은 세계적으로 관상용으로 유용하게 이용되며 앞으로 개발가치도 풍부한 식물 중 하나로서 이 종류는 꽃이 아주 복잡한 식물로 꽃 주변에서 꽃가루 수정을 위하여 곤충을 유인하는 무성화가 오히려 진짜 꽃으로 오인되는 식물 중 하나이다.

산수국은 수국보다 키가 작으며 꽃 색의 변이가 아주 심한 야생화로서 꽃색은 크게 청색계열, 자주색 계열, 흰색 계열, 심지어 노란색도 눈에 띄 정도로 변이 폭이 넓어 장래 관상용으로 제주 자생식물의 자원화 가치가 아주 높은 식물로 주변 환경과 토양에 따라 색의 변이도 있지만

고정된 색상의 품종을 육성하면 정원수, 화분용, 가로수와 같은 관상수종으로 유망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수국을 '아지사케'라 하며 가로수로 심어 지방 명물로 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도 한다.

특히 산수국은 그늘과 노출된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기존 정비된 가로수 밑이나 중앙분리대 또는 아예 산수국 도로로 조성하기 쉬운 식물로서 번식도 종자파종이나 꺾꽂이 등으로 쉽게 번식 시킬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이다.

제주도도 일정한 부분을 시기별 개화하는 특징이 있는 야생화로 도로를 조성하면 친환경적인 생태도로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또 하나의 명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 / 식생분야)>

['팽이'의 버섯이야기]부식된 땅위 피어나는 꽃

비 올 것을 미리 예감한 날이었다. 장마의 날씨라서 으레 이러리라 싶은, 안개 자욱하고 축축하고, 또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절물휴양림 주차장에서부터 개오리오름을 타고 넘어 5.16도로까지 향해 가는 과정이 이번 탐사로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동참했다.

장마철의 숲은 평상시와 달리 습기로 총만해 있어서, 썩어가는 부식질 위로 온갖 버섯들이 생장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초에 절물오름 탐사 시 동행 했던 곳이라 그때 말불버섯 노균(늙은버섯)이 보였던, 주차장 한 귀퉁이부터 들여다보게 되었다. 불과 3~4개월 전의 일이지만, 지난 번 보았던 버섯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기대했기 때문인지 다시 일년쯤은 시간이 흐른 듯 감회가 새로웠다.

역시나, 유균 상태인 어린말불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어릴 때는 식용도 가능하다는 말불버섯, 하얗고 자그마한 원형의 자실체와 뽕송뽕송한 느낌의 작은 돌기들, 말랑말랑한 촉감 등, 약간의 부식질에 삶을 의지해서 이런 생명체가 태어나 살아간다는 건 내겐 참으로 신기하게 다가온다.

휴양림 산책로 변에서 연보라무당버섯을 만났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7cm정도의 아담한 크기, 그리고 맑은 분홍색 갓, 하얗고 깨끗한 대와 자로 그은 듯 반듯한 주름살의 연보라무당버섯은 마치 깔끔한 외모의 아가씨를 보는 듯 환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이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 색이 아름다운 버섯은 흔히 독버섯이란 이야기들이 근거 없음을 이럴 때 알게 된다.

삼나무가 우거진 개오리오름 속엔 산쪽풀이며 십자고사리, 산수국 등이 무리지어 살면서 탐사단 일행이 스쳐 지나는 대로 잔뜩 머금었던 이슬을 툭툭 떨어낸다.

삼림속이라 날은 어둑하고 안개는 자욱이 끼어 방향을 알 수 없게 하는 날씨인데다, 가랑비마저 부슬부슬 내리며 옷과 신발을 적셔내는데, 숲에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고개 내민 버섯들은 참 많이도 눈에 들어온다.

탐사위원님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셨지만, 습기와 빛 부족에 약한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버섯과 실갱이 하려니, 점점 뒤쳐져서 미안해진다. 혼자 남겨져서라도 꼼꼼이 관찰하고 싶을 만큼 숲 속은 버섯들의 낙원이 되어 있었다.

가랑잎애기버섯, 밀버섯, 이끼패랭이버섯 등 관심이 없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작은 버섯들이 저들만의 삶을 이루어 발아래 무수히 펼쳐지는 것이다.

수 천년, 수 만년을 버섯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나고 자라고 살아왔을 테지만, 어쩌다 이제 와서 내 눈에 비치어져서는 난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신기해하고 호들갑을 떨며 생경스러워하는데, 만약 버섯에게 의식이 있다면 이런 나를 어찌 바라볼까?

오름을 오르다가 버섯이 눈에 띄므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요즘은 버섯이 있으므로 행복해진 나를 느낀다. 오늘 카메라에 담고 온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종의 버섯들을 고집어내서 버섯도감과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내야 하겠다.

<고평열(제주야생화동호회 수필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